“학생들 적극성이 동아리 활성화 이끈다”



시현 스님
성신여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프로그램 구성 · 회원 모집 ‘척척’
장점 활용해 주체적 성장 도와야
믿고 기다려 주는 시간 꼭 필요

1973년 창립돼 5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성신여대 불교학생회(이하 성불회). 성불회를 지금껏 지탱해온 근간에는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학생들이 있었다. 시키지 않아도 구성원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척척 만들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신입회원 모집에 앞장섰다. 진심으로 동아리를 생각하는 열정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들이다.

2023년 성불회 지도법사를 맡은 시현 스님도 현재 임원진 학생들의 적극성을 높이 샀다. 스님은 그저 곁에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뿐, 성불회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오로지 학생들의 몫이라 여겼다. 학생들도 성불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정말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중간 점검 정도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불교학생회는 학생이 주도해야 하고 스님은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덕분에 많은 경험을 했고, 큰 어려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네요.”

스님에 따르면 이채연 전 성불회장의 경우는 회원 모집에 특화됐다. 동아리 홍보활동 당시 동자승 인형탈을 쓰고 목탁을 쳐 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인품마저 좋아 같은 과 친구들도 이 전 회장을 따라 불교학생회에 줄줄이 가입했다. 학교생활과 동아리 활동이 어색한 신입생들도 이 전 회장의 꼼꼼한 보살핌에 점차 성불회 활동에 정을 붙였다.

유선재 부회장은 회장 소임을 맡았던 경험으로 임원진들이 무리 없이 학생회를 이끌어 가도록 지원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임도 같이 보고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주연 부회장은 성불회 맏언니로, 학생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다. 고민 상담 채팅창을 별도로 개설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고, 죽음 명상, 비건 음식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계획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생 전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같이 생각하고, 믿고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무언가를 급하게 해결해 주려는 권위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학생들이 장점을 활용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덕분일까. 성불회에는 현재 5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열리는 정기법회에는 20명 정도가 고정으로 참여할 만큼 참여율이 높다.

특히 2023년 11월, 성불회 학생들의 주도로 개최된 ‘원: 돌아가는 날을 그리다’ 전시회는 학생들의 손으로 이뤄낸 뜻깊은 결과물이다.

2024년은 이연서 신임회장이 새로운 성불회를 이끈다. 이 신임회장은 요가법회, 임종법회, 불교 영화와 책 모임, 글램핑 명상, 성불회 체육대회, 목제 식기 만들기 등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시현 스님은 또다시 이연서 법우 곁을 지키며 공약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울 것이다.

“선배들 지원 불교학생회 이어갈 버팀목”



주현우
전 경북대 불교학생회장

운영비 지원으로 재정 여유
선후배 끈끈한 유대감 얻어

경북대 불교학생회(경불회)는 1960년에 결성된 유서 깊은 불교 동아리다. 63년간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올해 상반기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 최우수 지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현우 전 경북대 불교학생회장이 꼽은 모범적인 경불회 활동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동문 선배들의 관심과 지원’이다.

동문 선배들은 경불회 운영비나 활동비에 모자람이 없도록 물심양면 도왔고, 불교학생회 구성원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매학기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멘토 역할도 자처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하다 보니 선후배 간에는 끈끈한 유대감을 얻었고 동문 선배들의 자긍심과 결속력도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떤 조직이건 오랜 시간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한두 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교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경불회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갖춰지자 경불회 활동도 안정을 찾아갔다. 회원 모집도 차질 없이 이뤄져 현재 17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정기법회, 사찰탐방, 템플스테이, 명상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통해 불교를 배워가고 있다.

주 전 회장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가 무엇인지 몰라 멀어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에 사찰에서는 또래들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전 회장은 “사찰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원하던 답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을 것”이라며 “한국 불교계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찰이 아니라 직접 뛰어나가 불교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 62년차 중앙회장으로서 새로운 전법의 길을 준비 중인 주 전 회장은 불교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교를 선택한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불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난 감사한 시간”



박재영
전 인하대 불교학생회장

선후배 꾸준히 만나 소통
즉문즉설 양방향 소통 제안

박재영 전 인하대 불교학생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얻었다. 늘 과거에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니 모든 순간이 새롭게 다가왔다.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소중한 인연들 덕분이었다.

“챙겨주는 선배님들, 아끼고 사랑하는 동기들과 후배들까지. 제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힘이 돼 줍니다. 인생의 도반들을 만날 수 있었던 불교학생회에 감사합니다.”

인하대는 인천 지역 대학 가운데 불교학생회가 있는 유일한 곳이다. 1970년에 설립된 인하대 불교학생회는 53년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누구든 편하게 들어와 쉬어 갈 수 있는 넓은 동아리 방과 공부 공간을 겸한 선방을 갖추고 있다.

지금이야 활기찬 동아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이 가입할 당시만 해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대학 생활의 낭만’인 동아리 활동을 즐기고자 야심차게 불교학생회에 가입했는데, 학생회 총 회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아 법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다. 군종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 목탁을 치고 법회를 집전했다. 절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불교 기초 교리도 같이 공부하면서 점차 불교학생회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동아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지도교수와 동문 선배들의 도움도 더해졌다.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여법한 활동 여건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71학번 선배부터 23학번 신입생까지 꾸준한 만남을 통해 인하대 불교학생회만의 소속감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불교학생회장 소임을 내려놓고 대학생활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박 전 회장. 그는 지금까지 선배들에게 받아온 사랑을 후배들에게 회향하고 싶다며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학생회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

△대학생 전법 거점으로 활동할 권역별 불교학생회 장학금·운영비 지원 △캠퍼스 내 스님이 운영하는 상담 공간 마련 △방학 기간 앞두고 주요 교통지에 템플스테이·명상·역사기행 등 사찰 프로그램 홍보 △대학생 대상 사경 경필대회, 시, 수필, 소설, 그림 공모전 개최 △각 지역별 전법센터 건립 △스님과 즉문즉설 법회로 양방향 소통 등이 있다.

RE:START
대학생 전법
2. 대학생 전법 어떻게 해야 하나



성신여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시현 스님이 학생들과 성북천에서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가 2023년 5월 13일 석불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인하대 불교학생회지도 법사 혜한 스님이 동아리방을 방문해 법문을 하며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정 경보 혜만 대종사



사서실장	도각	총무원장		대풍
승정원장	성도	총무부장		성우
승정부원장	도현	교무부장		덕광
원로원장	법우	재무부장		덕원
사정원장	도경	사회부장		덕법
중앙종회의장	도정	호법부장		도형
중앙교육원장	덕운	종승위원회	위원장	도신
중앙포교원장	도청	교육위원회	위원장	법우
불교문화예술원장	월수	고시위원회	위원장	도성
정수원장	덕우	법규위원회	위원장	도현
연수원장	덕각	정책위원회	위원장	범수



중앙총무원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대 표 전 화 : 055)352-3104

법인등록번호 191321-0002345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화엄회

부산총무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1 선프라자 417호
대 표 전 화 : 051)892-5000, 462-6181 Fax : 051)462-6652